

『韓国語教育研究』(第 11 号) 別刷

ISSN 2186-2044

【研究論文】

관형사절의 구성 요소가 설명할 ‘-을, -는’의 사용법

마에무라 카즈아키

日本韓国語教育学会

2021年9月

관형사절의 구성 요소가 설명할 ‘-을, -는’의 사용법

마에무라 카즈아키

본 연구는 ‘-을, -는’의 사용법을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로 설명한다. ‘-을, -는’의 사용법이란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 정보이다. 한국어 교재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는데, 의미와 형식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의미의 다름이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였지만 구성 요소가 설명하지 못하였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를 융합하여 ‘-을’ 혹은 ‘-는’을 체계적으로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의 융합,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이 체계적이어서 이들이 선택할 ‘-을’ 혹은 ‘-는’도 체계적이다. ‘부사어 - 관형사절은 ‘-는’을 선택한다, 주어 - 관형사절이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등의 연구 결과는 ‘-을’ 혹은 ‘-는’을 체계적으로 선택한다고 할 만하다. 의미의 다름과 연구 결과를 합치면 한국어 교재는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한국어 교재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염두에 두는데, ‘-을, -는’의 사용법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핵심이다.

1. 서론

본고의 목적은 관형사절의 구성 요소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고 전제하여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를 융합함으로써 ‘-을, -는’의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을, -는’의 사용법 설명이란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 정보이다. 관형사절 및 동사에 주목한 ‘-을’ 혹은 ‘-는’의 선택은 체계성이 결여한다.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의 융합이 체계적 선택이다.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을’ 혹은 ‘-는’을 선택해야 한다. ‘-을’ 혹은 ‘-는’을 선택하지 못하면 의사소통 과정에서 의미를 잘못 전달해 버린다. 화자는 의미 전달에서 ‘-을’ 혹은 ‘-는’을 주관적으로 선택할 우려가 있다. 주관적 선택을 해결하기 위해 관형사절의 구성 요소에 주목한다. ‘-을, -는’에 영향을 주는 구성 요소는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이다. 관형사절에 주목하면 관형사절 범주의 다름이 ‘-을’과 ‘-는’의 사용을 어느 정도 결정하고 동사에 주목하면 동사 성질의 다름이 ‘-을’과 ‘-는’의 사용을 어느 정도 결

정한다. 피수식체언에 주목하면 명사범주들이 공기할 만한 ‘-을’과 ‘-는’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 관형사절, 동사, 피수식체언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기는 하지만 관형사절이 선택할 형태와 동사가 선택할 형태, 동사가 선택할 형태와 피수식체언이 선택할 형태는 상이할 수 있다. 구성 요소마다 별개로 선택하면 상이한 형태를 선택할 문제점이 있다.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을 융합하여 구성 요소가 체계성을 갖추게 한다. 관형사절의 구조는 동사를 포괄하는 관형사절이 뒤의 체언을 수식하는 듯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을 융합하면 체계성을 갖출 가능성이 높다. 체계성을 갖춘 구성 요소는 ‘-을’ 혹은 ‘-는’을 체계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을’ 혹은 ‘-는’을 체계적으로 선택하기 위해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을 체계적으로 융합한다.

선행연구는 ‘-을, -는’의 의미, 언어적 특징, 사용상의 오류 양상을 개관하여 ‘-을, -는’의 사용법 설명과 관련짓는다. 남기심·고영근(1993), 이익섭·채완(1999)은 ‘-을, -는’이 [미래 : 현재]를 나타낸다고 하였고 안명철(1983)은 [-확실 : +확실], 박재연(2009)은 [-현실 : +현실]을 나타낸다고 하였다. ‘-을’의 의미와 ‘-는’의 의미가 달라서 ‘-을, -는’은 의미적 대립을 가진다. 신현숙(1982)은 ‘-을’이 [-실현], ‘-는’이 [+실현, -완성, -거리]를 나타낸다고 하였다. ‘-을’의 자질과 ‘-는’의 자질이 달라서 ‘-을, -는’은 자질의 대립을 가진다. 박장경(2005)은 ‘-u형’의 출현 환경을 언어 요인으로 설명하는데, 관계동사, 「명사 + 이다」 동사, 미완료상의 상태명사, 내용절의 미완료상의 중심명사, 내용절의 감각명사가 ‘-u형’을 사용한다. 최서원(2010)은 중국인 학습자 60명을 대상으로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율과 구체적 오류의 사례를 조사하였다. 오류의 유형을 생략, 환언, 첨가, 대치, 형태로 분류하였을 때, 대치의 오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는’을 써야 하는 자리에 ‘-은’을 쓰거나 ‘-을’을 써야 하는 자리에 ‘-는’ 및 ‘-은’을 쓰는 오류가 보고되었다. HE MEIPING·홍종선(2016)은 중국인 학습자의 관형사형 어미와 관형사절 각각의 오류 양상을 조사하였다. 관형사형 어미의 오류는 중급 학습자가 고급 학습자보다 대치 오류를 빈번하게 범하였다.

의미나 자질이 다르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할 수 있고 오류 조사가 선택과 관련한 대치의 오류 등 오류의 종류를 밝힐 수 있다. 오류 조사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할 필요성을 밝혔고 의미나 자질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구성 요소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하지 못하였다. 구성 요소를 융합하여 ‘-을’ 혹은 ‘-는’의 선택을 체계적으로 설명해야 한다.

2. 사용법 설명을 위한 기본적 논의

2.1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관형사절은 주술관계를 갖춘 절이 다른 주술관계를 갖춘 문장 안에 들어가는 구조를 가진다. 주술관계를 갖춘 절에서 피수식체언과 동일한 성분이 빠지면 관계관형사절을 형성하고 절의 성분이 피수식체언과 무관하면 동격관형사절을 형성한다. 절 내부의 성분이 주어, 목적어, 부사어에 해당한다.



관계관형사절은 주어 - 관형사절, 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로 분류한다. 관형사절 내부에 주어가 빠진 구조, 관형사절 내부에 목적어가 빠진 구조, 관형사절 내부에 부사어가 빠진 구조가 있다. 어느 성분이 관형사절 내부에서 빠지느냐에 따라 관형사절을 분류할 수 있다.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관형사절은 ‘-을, -는’으로 뒤의 체언을 수식한다.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이 공기하는 명사범주와 부사어 - 관형사절이 공기하는 명사범주는 각각 다르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가지는 특징은 명사범주로도 설명한다.

상은 움직임의 양상을 문법형태로 표현한 것과 움직임의 과정이 장면 내부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동사 자체의 어휘적 의미로 표현한 것이라 정의한다. 본고는 상을 동사 자체에 내재하는 성질로 이해하여 후자를 지지한다. 서정목(2014:121)은 동사가 상 성질을 가진다면 문법형태가 상의 성질을 가시화한다고 하였다. 상의 성질의 가시화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문법형태는 상의 성질을 가시화한 결과로 본다.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을 설정할 때, ‘앉다, 먹다’가 [+ 동태성, + 완성성, + 순간성]과 [+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으로 분류한다. 동사가 상이한 자질을 가지면 동사와 결합하는 형태는 상이한 자질을 가시화한 것이다. 상이한 자질을 가시화하면 ‘앉다’와 ‘먹다’는 다른 형태가 결합할 수 있다고 판단한다. ‘앉다, 먹다’를 주체와 객체의 변화/비변화로 세부 분류한다. 동사를 자질로 분류한 후 주체 · 객체의 변화/비변화로 분류하면 동사와 결합하는 형태를 판단하기 쉽다. 동사 자질만으로는 결합하는 형태를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동사 자질과 주체 · 객체의 변화/비변화는 결합하는 형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다. 결합하는 형태의 판단은 동사에 주목하는 방법이 있다.

2.2 ‘-을, -는’의 사용법에 관한 선례

2.2.1 한국어 교재에서의 ‘-을, -는’의 사용법 설명 방법

한국어 교재가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한다.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하려면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해야 할 것이다. 마에무라카즈야키(2020:130)는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염두에 두는 것으로서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를 뽑았다.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를 분석 대상으로 한다.

의사소통이란 의미를 ‘-을, -는’으로 전달하는 행위이다. 의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지면 ‘-을’과 ‘-는’은 상이한 의미를 전달한 결과로 간주한다. 의미의 다름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을, -는’으로 표현하려면 문법적 특징을 이해해야 한다. 문법적 특징이 다르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을’과 ‘-는’을 동일한 단원에서 다루거나 상이한 단원에서 다룬다. 다루는 단원이 상이하면 ‘-을’과 ‘-는’의 사용이 단원마다 정해진다. 단원의 다름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그리고 관형사절의 구성 요소는 ‘-을, -는’에 영향을 미쳐서 ‘-을, -는’의 문법적 특징을 드러내기도 한다. 관형사절의 구성 요소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의미의 다름, 단원의 다름, 문법적 특징, 구성 요소는 분석의 기준이 된다.

표 1

	의미의 다름	단원의 다름	독자적 특징	구성 요소
고려대	설명함	설명함	설명하지 못함	설명하지 못함
이화여대	설명함	설명하지 못함	설명하지 못함	설명하지 못함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의미의 다름, 단원의 다름을 만족하였으나 문법적 특징, 구성 요소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의미를 다르게 설명하거나 상이한 단원에서 다루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하게 한다. ‘-을’이 [미래]를 나타내고 ‘-는’이 [현재]를 나타낼 때, [미래]와 [현재]의 다름은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을’을 다루는 단원과 ‘-는’을 다루는 단원이 상이할 때, 단원과 단원의 다름은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을’ 혹은 ‘-는’을 선택하기 위해 문법적 특징과 구성 요소를 추가로 설명해도 될 듯하다. 그러나 문법적 특징은 외국인 학습자에게 지도할 만한 내용이 아니다. 특징은 전문 서적으로 다룰 만하지 외국인의 학습 참고서로 다루지 않는다. 문법적 특징은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가 다루는 내용으로 보지 못한다.

‘-을, -는’의 사용법을 의미의 다름, 단원의 다름으로 설명하였지만 구성 요소로 설명

하지 못하였다. 의미의 다름뿐 아니라 구성 요소로 설명해야 한다. 결국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할 가능성이 있다.

2.2.2 구성 요소가 설명하는 ‘-을, -는’의 사용법

‘-을, -는’은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의 영향을 받는다. 관형사절이 ‘-을, -는’을 포함하고 동사가 ‘-을, -는’과 결합한다. 그리고 피수식체언이 ‘-을, -는’과 공기한다. 마에무라카즈야키(2019)는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포함하는 ‘-을, -는’, 前村和亮(2017)는 ‘-을, -는’이 결합하는 동사부류·유형을 고찰하였고 金民(2009)은 ‘-을, -는’과 공기하는 명사범주를 고찰하였다.

‘-을, -는’의 사용법을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로 설명한다.

- (1) a. 냉장고에 마시(을, 는) 물이 있으니까 드세요.
- b. 학교에 가(을, 는) 사람을 본다.

(1)에서 ‘-을’ 혹은 ‘-는’을 연구 결과로 선택한다. 마에무라카즈야키(2019)는 주어·목적어 - 관형사절이 ‘-을, -는’을 포함하고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포함한다고 하였다. (1)은 주어 - 관형사절과 목적어 - 관형사절에 해당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을’ 혹은 ‘-는’을 모두 선택한다. 前村和亮(2017)는 ‘-을’과 결합하는 동사유형이 行為動詞 > 完成·變化動詞이고 ‘-는’과 결합하는 동사유형이 行為動詞 > 心理動詞 > 完成·變化動詞 > 瞬間動詞 > 移行動詞이라 하였다.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를 세부 분류하면 ‘-을’이 결합하는 동사부류가 주체 비변화/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이고 ‘-는’이 모든 동사부류와 결합한다. (1)은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와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에 해당한다. 동사부류·유형이 ‘-을’ 혹은 ‘-는’을 모두 선택한다. 金民(2009)은 ‘-을’이 時間名詞 > 事柄名詞와 공기하고 ‘-는’이 具体名詞 > 場所名詞 > 現象名詞 > 事柄名詞와 공기한다고 하였다. (1)은 具体名詞에 해당한다. 명사범주가 ‘-는’만을 선택한다.

마에무라카즈야키(2019)의 연구 결과, 前村和亮(2017)의 연구 결과, 金民(2009)의 연구 결과는 ‘-을’ 혹은 ‘-는’을 선택하였다. 그러나 연구 결과를 별개로 고려해도 선택에 체계성을 갖추지 못한다. 마에무라카즈야키(2019)의 연구 결과와 前村和亮(2017)의 연구 결과를 융합한 후 마에무라카즈야키(2019)의 연구 결과, 前村和亮(2017)의 연구 결과, 金民(2009)의 연구 결과를 융합하면 ‘-을, -는’의 사용법을 체계적으로 설명한다.

3. 연구 방법

‘-을, -는’의 사용법은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여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으로 설명한다. 말뭉치 자료의 이용이 객관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www.jw.org 에 나오는 「깨어라!」 2015년 1월 - 2019년 제3호의 기사에서 「주어/목적어 - 동사 + ‘-을, -는’ - 피수식체언」을 수집한다. 마에무라카즈아키(2019)는 「깨어라!」가 현실성, 객관성, 다양성을 만족하는 말뭉치 자료라 하였다. 「깨어라!」는 관형사절, 동사, 피수식체언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데, 구성 요소의 객관적 존재가 화자의 주관을 배제할 수 있다. ‘-을, -는’의 사용법을 객관적으로 설명하려면 「깨어라!」를 연구 자료로 선정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이 체계적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먼저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를 마련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는 주어 - 관형사절, 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이다. 동사유형은 心理動詞 : [-동태성, -완성성], 行爲動詞 : [+ 동태성, -완성성, -순간성, -접근성], 完成·變化動詞 : [+ 동태성, + 완성성, -순간성, -접근성], 瞬間動詞 : [+ 동태성, -완성성, + 순간성, -접근성], 移行動詞 : [+ 동태성, -완성성, + 순간성, + 접근성]이고 동사부류는 주체 변화/비변화, 주체 변화/비변화 - 객체 변화/비변화 동사이다. 명사범주는 野間秀樹(1997)에 따라 具体名詞, 場所名詞, 現象名詞, 事柄名詞, 時間名詞, 位置名詞, 抽象名詞, 物質名詞, 活動名詞이다. 다음으로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를 융합한다. 융합할 순서를 고려해야지 선택이 체계적이다. 마에무라카즈아키(2019)의 연구 결과가 포함, 前村和亮(2017)의 연구 결과가 결합을 이루고 金民(2009)의 연구 결과가 공기를 이룬다. 포함·결합은 구성 요소가 ‘-을, -는’에 가깝다. 구성 요소와 ‘-을, -는’의 관계는 포함·결합이 공기보다 밀접하다. ‘-을’ 혹은 ‘-는’의 선택에서는 관형사절과 동사를 피수식체언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관형사절의 구조가 체계적인데, 관형사절과 동사는 전체 - 부분의 관계에 있다. 전체가 부분에 비해 인간의 주목을 받기 쉽다. ‘-을’ 혹은 ‘-는’의 선택에서는 관형사절을 동사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고려할 순서는 관형사절 > 동사 > 피수식체언이다. ‘-을’ 혹은 ‘-는’을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로 선택하지 못하면 동사부류·유형으로 선택하고 동사부류·유형으로 선택하지 못하면 명사범주로 선택한다는 방법은 관형사절과 동사, 피수식체언이 선택에서 체계성을 갖출 수 있다.

표 2

	'-을' 혹은 '-는'의 선택				선택의 결과
	가능	불가능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에 주목하는 것					
동사유형에 주목하는 것		가능	불가능		
동사부류에 주목하는 것			가능	불가능	
명사범주에 주목하는 것				가능	불가능

위는 '-을' 혹은 '-는'의 선택에 체계성을 갖출 수 있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를 별개로 고려하지 말고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의 융합,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을 고려한다. 주어 - 관형사절, 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이 '-을' 혹은 '-는'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면 주어 · 목적어 · 부사어 - 관형사절 하에서 동사부류 · 유형이 쓰는 行為動詞, 心理動詞, 完成 · 變化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 및 주체 변화/비변화, 주체 변화/비변화 - 객체 변화/비변화 동사가 '-을' 혹은 '-는'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의 융합이 '-을' 혹은 '-는' 중의 하나를 선택하지 못하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쓰는 동사부류 · 유형과 공기하는 具體名詞, 場所名詞, 現象名詞, 事柄名詞, 時間名詞, 位置名詞, 抽象名詞, 物質名詞, 活動名詞는 '-을' 혹은 '-는' 중의 하나를 선택한다.

'-을' 혹은 '-는'의 선택이 객관성을 갖추기 위해 말뭉치 자료를 이용하고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을 고려한다. 즉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으로 선택해야지 선택이 체계성을 갖춘다.

4. '-을, -는'의 사용법을 구성 요소로 설명한 결과

4.1 관형사절과 동사로의 사용법 설명

4.1.1 관형사절이 선택할 경우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을 주어 - 관형사절, 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로 분류할 때,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이 '-을, -는'을 포함하지만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포함한다.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이 '-

을’ 혹은 ‘-는’을 선택하고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선택한다.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선택하기 위해 동사유형을 요구하는지 조사한다. 동사유형은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선택한다는 요인과 무관하다고 확인한다. 부사어 - 관형사절이 쓰는 동사유형을 조사한다.

표 3

	心理動詞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
부사어-관형사절		-는	-는		

부사어 - 관형사절은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를 쓰고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지 않는다. 2.2.2절에서 ‘-을, -는’이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와 결합하고 ‘-는’이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와 결합한다고 하였다. 후자는 부사어 - 관형사절이 쓰지 않는 동사유형이라서 ‘-을’ 혹은 ‘-는’의 선택과 무관하다. 부사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를 쓰고 ‘-을, -는’이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와 결합하는데, 부사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를 쓰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부사어 - 관형사절이 동사유형을 고려하면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을 선택한다는 결과와 모순한다.

부사어 - 관형사절은 동사유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는’을 선택한다. 이때, ‘-을, -는’이 결합하는 동사유형은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 요인이 아니다. 만약 부사어 - 관형사절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면 ‘-는’ 하나를 선택하기 위해 동사유형을 추가적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부사어 - 관형사절이 ‘-는’만을 선택한다는 선행연구 때문에 부사어 - 관형사절이 쓰는 동사유형을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부사어 - 관형사절 하에서 ‘-을, -는’이 결합하는 동사유형은 무관하다. 따라서 부사어 - 관형사절은 동사유형에 상관없이 ‘-는’을 선택한다.

- 부사어 - 관형사절은 ‘-는’을 선택한다.

4.1.2 관형사절과 동사의 융합이 선택할 경우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의 융합이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한다. 4.1.1 절에서 주어·목적어 - 관형사절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고 하였다. 주어·목적어 - 관형사절 하에서 동사유형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해야 한다.

표 4

	心理動詞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
주어-관형사절	-는	-을, -는	-을, -는	-는	-는
목적어-관형사절	-는	-을, -는	-을, -는		

주어 - 관형사절이 心理動詞,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고 목적어 - 관형사절이 心理動詞,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를 쓴다. 주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하고 목적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2.2.2절에서 ‘-는’이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와 결합한다고 하였다. 겹치는 동사유형은 주어 - 관형사절이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이고 목적어 - 관형사절이 心理動詞이다. 주어 - 관형사절이라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에 대한 고려 없이 ‘-는’이 결합하는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가 ‘-는’을 선택하고 목적어 - 관형사절이라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에 대한 고려와 心理動詞가 ‘-는’을 선택한다. 다시 말해 주어 -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를 고려하지 않아도 동사유형만으로 ‘-는’을 선택하지만 목적어 -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를 고려하여 동사유형이 ‘-는’을 선택한다. 그러나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를 고려하는 경우와 고려하지 않는 경우는 일관성이 없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를 반드시 고려하면서 동사유형이 ‘-는’을 선택하도록 해야 한다. 목적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만의 고려로 ‘-는’을 선택하고 주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의 고려로 ‘-는’을 선택한다고 결론짓는다.

- 주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 목적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b는 기본적 의미, 모범적 대화문을 설명한다. 기본적 의미는 ‘-는’이 시제·상 범주에서 나타내는 [현재], [진행]이다. 田野村忠夫(1990:230)는 추상적 의미 특성(본질, 가치, 의의소)을 추구한다고 하는데, 본고에서의 기본적 의미에 가깝다. ‘[현재], [진행]을 ‘-는’으로 표현한다’가 의미 교환에 해당한다. 의미를 형태에 얽어서 표현하는 것은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의미 교환이란 언어를 사용하여 표현하는 행위로서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현재], [진행]은 ‘의사소통 양성을 위한 의미 교환’으로 설명한다. 모범적 대화문은 도입 부분에 위치하는 대화 모형이다. 대화가 단원의 첫 부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언어 교육은 대화로 진행한다. 그리고 언어 교육은 의미 교환을 적극적으로 수행한다. 언어 교육은 의미 교환을 대화로 진행한다. 따라서 모범적 대화문

은 ‘의미 교환의 기본’으로 설명한다.

c는 과제 활동을 설명한다. 과제 활동은 이화여대 교재를 참조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많은 문제를 그룹으로 해결하는 활동이다. 그룹으로 해결하는 문제가 의미를 가지기 때문에 과제는 학습자들의 상호작용이 필수적이다. 상호작용적인 의사소통이 과제 해결에 도움을 준다. 따라서 과제 활동은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상호작용’으로 설명한다.

d는 관형사절 구조를 설명한다. 관형사절 구조는 「(주어 - 동사) + ‘-는’ - 피수식체언」이다. 한재영 외(2008)는 문법 교육이 구조와 규칙을 설명한다고 하였다. 「(주어 - 동사) + ‘-는’ - 피수식체언」이 구조에 해당하고 ‘(주어 - 동사)가 피수식체언을 수식한다’가 규칙에 해당한다. 구조와 규칙의 설명은 문법에 초점을 맞추는 계기를 제공한다. 문법적 설명이 있으면 사용의 과정에서 구조와 규칙에 주목할 수 있다. 따라서 관형사절 구조는 ‘문법에 초점을 맞춘다’로 설명한다.

표 5

		주어 - 관형사절		목적어 - 관형사절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	行為動詞	完成變化動詞
자동사	주체 비변화	(-을)-는	-는		
	주체 변화	(-을)-는	-을, -는		
타동사	주체비변화-객체비변화	-을, -는		-을, -는	-는
	주체변화-객체비변화	-는		-는	
	주체비변화-객체변화	-는	-는	-는	-는
	주체변화-객체변화		-는		-는

주어 · 목적어 - 관형사절이 쓰는 行為動詞, 完成 · 變化動詞는 많은 동사부류를 쓴다. 주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完成 · 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거나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完成 · 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면 ‘-는’을 선택한다. 주체 비변화, 주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등의 동사는 ‘-을’과 결합하더라도 결합의 빈도가 아주 적었다. 결합의 빈도가 적으면 결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한다. 주체 비변화, 주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등의 동사는 ‘-는’과 결합한다. 동사유형만으로는 누락없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지 못하기 때문에 동사부류를 추가로 고려하였고 ‘-을’ 혹은 ‘-는’을 선택하기 위해서는 동사부류 · 유형에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를 추가로 고려하였다. 반면 주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完成 · 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거나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와 결합하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 주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 및 完成 · 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 및 完成 · 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4.2 관형사절 · 동사 및 체언로의 사용법 설명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명사범주가 선택할 만한 용례는 주어 - 관형사절이 쓰는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변화/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 完成 · 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 혹은 목적어 - 관형사절이 쓰는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이다.

표 6

		장소	구체	사항	위치	시간	추상	현상	물질	활동
주어- 관형사절	行為動詞		-을							
	주체비변-객체비변		-는							
	完成 · 變化動詞			-을			-는			-을
	주체변화			-는						-는
목적어- 관형사절	行為動詞		-을				-는			-을
	주체비변-객체비변		-는							-는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 사례와 金民(2009)의 연구 결과를 융합하였다. 4.1절의 결과에 ‘-을, -는’과 공기히는 명사범주를 추

가로 고려하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할 사례가 많아진다. 주어 - 관형사절이 完成·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抽象名詞와 공기할 때,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을 고려하면 명사범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하고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을 고려하지 않으면 명사범주가 ‘-는’을 선택할 경우가 있다. 즉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에 명사범주를 추가로 고려함으로써 오히려 ‘-는’만을 선택하지 못하게 된다는 뜻이다. 예컨대 具体名詞가 ‘-는’만을 선택하는 반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을 고려하면 具体名詞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하게 된다. 여러 구성 요소를 추가로 고려하면 ‘-을’ 혹은 ‘-는’을 선택하게 되는 사례를 발견하여서 여러 구성 요소를 고려하지 말아야 한다고 판단할지 모른다. 그러나 3장에서 선택은 관형사절과 동사를 고려한 후 체언을 고려해야지 체계적 선택이라 하였다. ‘-을, -는’의 사용법 설명은 체계성을 갖추기 위해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의 융합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 후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명사범주가 ‘-는’만을 선택할 수 있더라도 먼저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및 동사부류·유형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하고 나서 명사범주가 ‘-는’을 선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하에서 동사부류·유형이 抽象名詞와 공기할 때, ‘-는’을 선택한다.

주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具体名詞와 공기할 때, 完成·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活動名詞와 공기할 때, ‘-을’ 혹은 ‘-는’을 선택하고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為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具体名詞, 活動名詞와 공기할 때,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유형 하에서 ‘-을, -는’이 공기하는 명사범주는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 요인으로 보기 어렵다.

5.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한국어 교재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을, -는’의 사용법을 의미의 다름으로 설명하였으나 구성 요소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을’의 의미와 ‘-는’의 의미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하는데, 의미의 다름은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한편 (1)을 4.1, 4.2절의 결과로 설명하면 연구 결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할 수 있다. 먼저 4.1, 4.2절의 연구 결과를 정리한다.

- A : 부사어 - 관형사절은 '-는'을 선택한다.
- B : 주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 瞬間動詞, 移行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목적어 - 관형사절은 心理動詞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 C : 주어 - 관형사절이 行爲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 및 完成 · 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爲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 및 完成 · 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주체 변화 - 객체 변화 동사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 D : 주어 - 관형사절이 完成 · 變化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抽象名詞와 공기할 때, '-는'을 선택한다.
목적어 - 관형사절이 行爲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비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抽象名詞와 공기할 때, '-는'을 선택한다.

A, B, C, D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A - B - C - D의 순서로 고려하면 A 혹은 A, B나 A, B, C는 체계적 선택이다. '-을' 혹은 '-는'의 선택을 A, B, C, D로 설명한다. 일반적으로 뭔가를 설명하는 것은 설명하기 위한 내용이다.

표 7

	'-을' 혹은 '-는'의 선택				결과
	가능	불가능(1a,b)			
A	가능	불가능(1a,b)			-을, -는
B		가능	불가능(1a,b)		-을, -는
C			가능(1a)	불가능(1b)	-는 (1a)
D				가능(1b) 불가능	-는 (1b)

(1a)은 목적어 - 관형사절이고 목적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爲動詞를 쓴다. 목적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爲動詞를 쓰면 '-을' 혹은 '-는' 모두를 선택한다. 목적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爲動詞이면서 주체 비변화 - 객체 변화 동사를 쓰면 '-는'을 선택한다. (1b)은 주어 - 관형사절이고 주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爲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를 쓴다. 주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爲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를 쓰면 '-을' 혹은 '-는' 모두를 선택한다. 주어 - 관형사절 하에서 行爲動詞이면서 주체 변화 동사와 결합하는 동시에 具体名詞와 공기하면 '-는'을 선택한다. (1a)과 (1b)은 '-는'을 선택한다. (1a)을 A, B, C로

설명하였고 (1b)을 A, B, C, D로 설명하였다. (1)의 ‘-을’ 혹은 ‘-는’을 연구 결과로 선택하기 때문에 A, B, C, D는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의미의 다름과 A, B, C, D는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가 다룬 만한 교수내용임을 확인한다. 마에무라카즈야키(2020:131)는 관형사절의 구조, [현재] 혹은 [심적 태도], [변화과정의 근원], [변화의 과정], [의지], [확실함의 설명], 예문제시, 모범 대화문, 문장 완성·연결 연습, 읽기 - 쓰기, 말하기 - 듣기, 과제 활동이 ‘-는’의 교수내용이라 하였다. [미래 : 현재]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현재]가 교수내용이라면 [미래]도 교수내용이다. [미래 : 현재]는 교수내용이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및 동사부류·유형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과 동사는 관형사절의 구조에서 전체 - 부분 관계에 있다. 주어·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은 「주어/목적어 - 동사 + ‘-을, -는’ - 피수식체언」에서 주어, 목적어, (부사어)를 피수식체언의 자리에 이동하였다. 즉 주어·목적어 - 관형사절, 부사어 - 관형사절은 관형사절의 구조에서 여러 성분을 이동한 결과이다. 관형사절의 구조가 교수내용이라면 관형사절의 구조에서 성분을 이동한 것도 교수내용이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포함하는 ‘-을, -는’과 관련하는 A는 교수내용이다. 동사부류·유형이 관형사절의 구조에서 부분인 동사를 분류한 것이다. 전체인 관형사절의 구조가 교수내용이라면 부분인 동사를 분류한 것도 교수내용이다. ‘-을, -는’이 결합하는 동사부류·유형과 관련하는 B, C는 교수내용이다. 또한 마에무라카즈야키(2019)는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어느 명사범주와 공기한다고 하였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명사범주와 관련하는데,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로 ‘-을’ 혹은 ‘-는’을 선택하면 명사범주로 ‘-을’ 혹은 ‘-는’을 선택할 수 있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하에서 ‘-을, -는’이 결합하는 동사부류·유형과 공기하는 명사범주는 교수내용이 된다. A, B, C, D는 교수내용이다.

의미의 다름과 A, B, C, D는 학습자에게 전달할 교수내용이다.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을, -는’의 사용법을 의미의 다름과 A, B, C, D로 설명한다. 2.2.1절에서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가 의사소통 능력의 향상을 목표로 한다고 하였다.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는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면 의사소통 능력을 향상할 수 있다. 의미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의미의 다름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할 것이고 관형사절의 구조나 결합하는 동사의 특징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A, B, C, D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을, -는’의 사용법 설명은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핵심이다.

6. 결론

본 연구는 ‘-을, -는’의 사용법을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로 설명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유형, 명사범주를 융합하면 ‘-을’ 혹은 ‘-는’

의 선택이 체계적이다. 한국어 교재는 ‘-을, -는’의 사용법을 의미의 다름으로 설명하였지만 구성 요소로 설명하지 못하였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하고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하에서 동사부류 · 유형이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하에서 동사부류 · 유형과 공기하는 명사범주가 ‘-을’ 혹은 ‘-는’을 선택한다.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에 별개로 주목하지 말고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의 융합, 관형사절의 하위 범주와 동사부류 · 유형, 명사범주의 융합에 주목해야지 ‘-을’ 혹은 ‘-는’의 선택에 체계성을 갖출 수 있다.

의미의 다름뿐 아니라 연구 결과는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리고 ‘-을, -는’의 사용법을 설명하는 내용은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가 전달할 교수내용이다. 의사소통 능력 향상을 목표로 하면 ‘-을, -는’의 사용법 설명은 고려대, 이화여대 교재에서 의사소통 능력 향상의 핵심이다.

참고문헌

- 남기심 · 고영근(1993), 표준 국어문법론, 서울 : 탑출판사.
- 마에무라카즈야키(2019), 관형사절과 피수식체언의 상관성 고찰, 『학습자중심교과교육연구』 19-20 학부
자중심교과교육학회, pp.63-81.
- 마에무라카즈야키(2020), 교재 기능을 고려한 관형사형 어미 ‘-는’의 내용, 『韓國語教育研究』 10 日本韓
國語教育學會, pp.117-132.
- 박재연(2009),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의 의미 기능과 그 문법 범주, 『국어학』 43 국어학회 pp.151-177.
- 박장경(2005), 日本語의 連体修飾構文에 關한 研究, 제이앤씨.
- 신현숙(1982), 관형형 어미의 의미 분석, 『상명대학교 논문집』 10 상명대학교논문집, pp.93-116.
- 서정목(2014), 한국어 어미의 문법, 역락.
- 안명철(1983), 현대국어의 양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 이익섭 · 채원(1999), 국어문법론강의, 서울 : 学研社.
- 최서원(2010), 한국어 관형사형 어미 대치 오류 분석,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 35, pp.157-185.
- 前村和亮(2017), 冠形詞修飾語尾 ‘-을, -는’의 使い分けに 關する 一考察, 『韓國語教育研究』 7 日本韓國語教育
學會, pp.161-174.
- 金民(2009), 現代朝鮮語の動詞の連体形と被修飾名詞の共起に關する研究, 『朝鮮學報』 212 朝鮮學會, pp.
67-101.
- HE MEIPING · 홍종선(2016),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관형절 내포문 사용 양상 연구, 『한국어문학국제
학술포럼』 33, pp.115-148.
- www.jw.org 깨어라!, 위치타위성서잡지협회.
- 고려대학교 국제어학원(2009), 『재미있는 한국어』, 교보문고.
- 이화여자대학교 언어교육원(2010), 『이화 한국어』,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한국의국어대학교 국어국문학과)

mdkked12@naver.com

韓国語教育研究 (第 1 1 号)

2021 年 9 月 15 日 発行

発行者 文 慶喆

発行所 日本韓国語教育学会

〒577-8052 大阪府東大阪市小若江 3-4-1

近畿大学 国際学部 酒匂康裕 研究室気付

編集者 『韓国語教育研究』編集委員会

金世徳、柳朱燕

印刷所 株式会社 仙台共同印刷
